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22년 9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백 승 훈

훈 련 개 요

1. 교육기관 : 창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 과 정 명 : 사회복지
3. 훈련과제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4. 훈련기간 : 2020. 3 ~ 2022. 8.

『목 차』

제 I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7

제 II 장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의	10
1. 다문화가정	11
2. 다문화가정 청소년	14
3. 다문화가정 청소년 문제점	16
제2절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23
1.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정책 및 법률	23
2.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학교	27

제 III 장 지원정책 외국사례 및 시사점

제1절 호주의 사례	34
1. 다문화 정책	34
2.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	35
제2절 미국의 사례	37
1. 다문화 정책	37
2.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	38
제3절 독일의 사례	40
1. 다문화 정책	40
2.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	41

제4절 외국사례에서의 시사점	43
1. 호주	44
2. 미국	47
3. 독일	49

제Ⅳ장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 개선방안

제1절 한국 다문화 청소년의 지원 정책 개선 방안	52
1. 언어교육 측면	53
2. 법 측면	55
3. 예산 측면	56
2. 정책학교 측면	59
제2절 외국 사례 개선 방안	67
1. 호주	67
2. 미국	69
2. 독일	70

제Ⅴ장 결론

■ 참고문헌	78
--------------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제 I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다문화의 의미는 하나 이상의 다수의 문화를 뜻하며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사회를 의미하며 다양한 무형의 문화가 존재함으로써 상호간의 문화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말한다. 오늘날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편견, 고정관념 등과 같은 선입관을 배제하는 일과 같은 새로운 관점의 다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문화의 경우 ‘다양성’을 바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중요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19년 기준 국내 거주 다문화 학생은 총 13만 여명으로 지난해 12만여 명보다 1만 여명이 늘어났으며 이는 전체 학생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2.5%정도이다. 행안부¹⁾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는 17만 3천 여명으로 전체 거주 외국인의 9.7%에 달하며 이 중에서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42.8%가 여성이다. 여기서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흔히 말하는 3D 업종의 기피 현상과 맞물려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가족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와 이들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내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는 여전히 많은 부분의 개선 여지가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 보완되어야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보고서, 2020.10

할 상황이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이들 청소년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복지는 무엇인지 찾아 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전에도 다문화가정과 연관된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다문화가정청소년을 위한 복지차원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어 그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인식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각각의 문화권에 대해 선입견을 배제하고 상호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한 나라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성장해 온 청소년들이 어떻게 각자 생활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생활할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다양한 복지·사회·정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수용하는 서비스와 이들 청소년들이 수긍하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한다. 또한 다문화 가족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사회현상은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복지지원정책과 유사하거나 구별되는 지원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본 정책추진에 참고하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들 가정의 청소년들이 처해진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방식과 또한,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의 다름으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과 구별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나라 학생들과 다른 면을 이해하도록 각자 노력해야 한다. 이들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 청소년들 삶 전반에 걸친 지원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희망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지원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호주 등 외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정책 등을 들여다보고 이들 시사점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이들이 지원받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들이 다양한 사회에서 생활할 때 여러 형태의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서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오늘날 지구촌이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을 보다 심도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터전을 마련하고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보다 발전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와 선진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지원정책 사이에는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이와 더불어 그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 중에는 이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보완하고 개선이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들 청소년들이 누리고 있는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고 앞서 다문화사회로의 추진 과정에서 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중 가장 두드러지는 교육 과정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알아봄으로써 그들이 받고 있는 교육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보다 발전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서

비스 지원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문화 청소년 관련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이들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정책 서비스를 분석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 중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다문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학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관별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상대로 한 정책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형태의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어 이들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누리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다인종 국가는 물론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어 훨씬 전부터 많은 서비스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주요 선진국들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책들을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과제의 과업범위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단순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료는 가능한 한 배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 등의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자료, 학술연구논문, 전문서적, 다문화가정센터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여가부 통계자료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오늘날의 상황과 비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다문화가정과 이들 청소년의 개념과 현황, 그들이 누리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외국사례를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찾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과제의 경우는 총 다섯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1장은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이다. 연구의 방향과 분석 방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제 2장에서는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의 개념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다문화가정 청소년 연관된 정책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개념간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주관적인 관점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들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중 경제적인 부분, 교육, 학교 등 이들이 사실상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정책과 이들 청소년 지원 서비스 부분에 대해 살펴본 후에 각 부분의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나라별로 이들 청소년을 위한 지원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의 경우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앞서 살펴본 시사점에 대한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했다.

제 3 절 선행연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계화, 글로벌화 진행되면서 나라간 결혼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문화적, 언어적 차이,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차별 등으로부터 많은 위험 요소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은 일반 가족보다 훨씬 더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이들 청소년에게 맞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강하라²⁾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에 따

2) 강하라, 다문화 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 양육행동을 매개로 초기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 단적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논문, 제11권2호,

른 심적 부담은 양육행동을 매개로 이들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다룬 대다수의 연구 자료는 동일시점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급별로 변화를 겪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분적인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 역시 일방적 방향적 관계를 설정하여 부모 자녀의 양방향 상호 영향이 있는지 확인되지 못했다. 3)이형하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외모의 차이, 문화적응 심적 부담, 한국어 사용에서의 어려움, 친구 집단으로부터의 소외, 학업 성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나아가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이들 자녀에 대해 관심이나 지지를 힘들게 만들고, 양육을 곤란하게 만들며 교육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학습지도의 어려움과도 연결되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교부적응 정도가 심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⁴⁾

다문화란 오롯이 하나의 문화만을 갖는 문화와는 달리, 동일한 혈통을 추구하던 단일 문화에 여러 형태의 문화들이 유입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말한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인종, 계층,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특성이 존재하는 국적의 가정을 의미한다.

최지예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주류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문화 적응에 의한 힘든 과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이들 문화를 적응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화 적응 심리적 부담이 유발되며,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와 다른 주류사회에 대한

2021, pp.127-162

3) 이형하, 부모의 스트레스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 간 중 단적 인과관계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적용,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술지논문, 2021, pp.373-385

4) 최지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와 외국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문화를 서로 경험하며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역량인 이중 문화 역량이 축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문화적응에 따른 심적 부담은 그들의 우리나라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와 외국 문화를 수용하는 상호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⁵⁾

다문화가족 청소년 연관된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중앙 부처별 다문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게 된 다문화 가족이 처음 사회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복지 정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정부와 민간 협력을 근간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언어교육, 상담,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영과 이윤석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과 가정환경의 연관성의 연구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연속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연구는 초·중학교 등 특정 시기에 한정되고 있으며, 학교 등급별 적응 형태를 비교분석하는 연구의 경우도 우리사회에 진입하는 주요 관문인 고등학교에서의 문제를 완전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또는 이들의 가정 환경 문제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⁶⁾

신창식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 국가의 사례는 문화다양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반영이 다소 부족한 한국의 정신건강 정책과 비교되는 바가 크다. 호주의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수적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정책에 다양성의 반영을 통한 다문화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은지용의⁷⁾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다인종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5)김지영, 이윤석,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부모의 역할: 학교 급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연구논문, 43권 3호, 2020. pp.77-104.

6) 신창식,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에 관한 연구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 연구논문, 68권 1호, 2021, pp.257-281

7) 은지용, 한국과 미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 간행물 교육교원,36권1호, 2020.01, pp.193-220.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던 미국의 사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는 오늘날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⁸⁾ 김정진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 국가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연방정부의 정책 및 서비스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목적·목표·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연방 포럼 ‘가족’이 있다. 두 번째, 서비스 차원에서 ‘지역 가족연대’가 있으며 다양한 지역 여건 속에서 가족지원을 향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대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 적응과 함께, 사회 전체가 이들에 대해 차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로 인해 지금의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들을 수립했을 것이다.⁹⁾

외국의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복지 지원 정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방안들을 살펴볼 수 있다. 호주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 등 상호간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샐러드 볼 이론을 통해 다문화정책을 시행한다. 여러 형태의 정책유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분야에 많은 지원 방안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보다 다양한 지원 복지 혜택을 받기를 희망한다.

제 II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의

1. 다문화가정

1) 다문화가정 정의

문화는 오롯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들이

8) 김정진, 일본과 독일의 다문화 정책, 월간 공공정책, 128권, 2016.06 pp.24-27.

9)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 년 3 월 21 일 제정하여, 2008 년 9 월 22 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또한 2013 년 8 월 13 일에 6 차 일부 개정하여, 201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함.

모여 함께 공존하며 형성된 것으로 수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다문화가정이란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인종, 계층, 성별, 등의 사회집단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이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결혼을 하거나 이주노동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고, 그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가정이 한국 국적으로 바꾼 가정을 말하며 큰 의미로는 “다문화가정”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다문화라는 뜻은 다문화가정이라는 단어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적 구성원들로 합쳐진 가정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¹⁰⁾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¹¹⁾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와 국적법¹²⁾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등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정 현황

오늘날 글로벌화로 인해 수많은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 세계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한 속도로 변하고 있고 결혼이나 취업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면서 국제결혼과 외국인근로자가정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 국내 체류기간 현황¹³⁾

10)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1.1.1.][법률 제10275 호, 2010.5.4., 일부 개정]

1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보고서, 2020.10

13)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보고서, 2020

체류 기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515,051	403,330	111,721	173,882	34,628	139,254	160,610	76,048	84,562
1년미만	107,539	80,162	27,377	12,511	1,750	10,761	55,776	23,800	31,976
1년~2년미만	133,535	99,000	34,535	13,087	2,100	10,987	42,671	21,647	21,024
2년~3년미만	107,110	80,496	26,614	12,738	2,102	10,636	28,049	13,948	14,101
3년~4년미만	62,666	53,886	8,780	11,934	1,967	9,967	16,829	7,933	8,896
4년~5년미만	45,062	39,247	5,815	9,466	1,692	7,774	8,389	3,914	4,475
5년~10년미만	439,717	34,306	5,411	57,188	12,168	450,20	7,688	4,085	3,603
10년이상	18,909	15,833	3,076	56,813	12,828	43,985	1,069	624	445
미상	513	40	113	145	21	124	139	97	42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0.10.29.

다문화 사회가 급속히 증가해 감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다문화학생 진입이 시작되는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전체학생과 비교해서 다문화학생의 비중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다문화가정정책의 기본 이념으로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의 참여와 공존이 통상적인 사회개념으로 나아가고 모두가 신뢰하고 인정하며 존중받고 차별 받지 않는 다문화사회를 실현하며,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목표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올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지원체계의 실천적인 방법으로 가족의 형태에 상관없이 다문화가정에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들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과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으로 양분되어 있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더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새로 신설된 다문화가정 정보 및 소통 공간을 활용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융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지역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 지도자 등 종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처우 개선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지원을 도모한다.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정은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며 자녀교육에 많은 불편한 사항에 처해지게 된다. 그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순탄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들 가정에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우리사회 구성원 일부로써 어려움 없이 어울리기 위해서 가족생활교육, 가정상담 등의 현실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가족 유대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2013년에 발표된 청소년기본법에 규정한 바를 따른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라고 밝힌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외국의 근로자 자녀와 함께 국제결혼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를 정의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표를 제시한다.

<표 2-2> 다문화가정 청소년 유형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청소년
국제결혼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아버지사이에서 태어난 청소년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청소년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한국에 이주한가정의 청소년
새터민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한청소년
	한국에서 태어난 청소년

출처: 윤희원,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사례 연구, 2006

먼저 다문화가정 청소년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을 말한다. 이는 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으로 형성되어 진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은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가정의 자녀를 의미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우리나라 생활 빈도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내에서도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국내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이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 혼인가정 자녀로 한정한다.

2.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1)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유형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확대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행안부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전체 규모는 237천 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15천 여명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만6세 이하 아이들은 114천 여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지속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현황¹⁴⁾

년도	연령별 현황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9	264,626	117,045	104,064	26,524	16,993
2018	237,506	114,125	92,368	19,164	11,849
2017	222,455	115,085	81,826	15,753	9,791
2016	201,333	113,506	56,768	17,453	13,606
2015	197,550	116,068	61,625	12,567	7,290

출처: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2020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근래 국내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 역시 해가 진행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많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전체 청소년 비율과 비교하여 다문화문화가정 청소년의 수가 생각 이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2-4〉 다문화학생 현황¹⁵⁾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원수							
다문화학생수(A)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137,225
전체 학생수(B)	6,489,349	6,294,148	6,097,297	5,890,949	5,733,132	5,592,792	5,461,614
다문화학생비율(A/B*100)	0.86%	1.08%	1.35%	1.68%	1.91%	2.19%	2.51%

출처 : 여성가족부, 교육통계, 2020. 4.기준

2020년 4월 기준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는 총 학생의 2.51%에 달하는 137천 여명으로 지난 해 대비 10.9%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청소년 수는 연 평균 14만명 이상으로 줄어 든 것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는 매년 10만 명 이상씩 늘어나고

14) 여성가족부,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보고서

15) 여성가족부, 연도별 다문화가정통계, 보고서, 2020

있는 경향이다. 다문화 학생수의 비율은 2013년의 경우 0.86%에서 6년 뒤인 2019년도는 2.51%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확인하면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이 80% 이상 대부분이고 2016년을 계기로 외국인가정 학생 수 또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유추해 볼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짐작된다.

<표 2-5> 학교 급별(초, 중, 고) 다문화학생 수¹⁶⁾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각종 학교	계	초	중	고	각종 학교	계
국내 출생	59,988	11,479	4,657	76,124	68,610	12,265	8,439	197,756	76,181	13,599	8,361	122	98,263	83,602	15,891	8,464	112	108,069
중도 입국	4,583	1,627	1,208	7,418	4,843	1,722	1,227	15,599	5,023	1,907	1,185	205	8,320	5,148	2,131	1,220	198	8,697
외국인 자녀	9,453	1,989	1,192	12,634	9,280	1,958	1,043	34,431	11,823	2,561	1,142	102	15,629	15,133	3,671	1,550	107	20,459
계	74,024	15,105	10,057	99,186	82,733	15,945	10,709	109,387	93,027	18,068	10,688	429	122,212	103,881	21,693	11,234	417	137,225
비율	74.6%	15.2%	10.1%	100%	75.6%	14.6%	9.8%	100%	76.1%	14.8%	8.7%	0.4%	100%	75.7%	15.8%	8.2%	0.3%	100%

여가부¹⁷⁾에서 2019년 발표한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 학생 수를 보면 137천 여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2.5%에 달한다. 전년도인 2018년은 122천 여명으로 2019년과 대비하여 15천 여명이 증가해, 2012년부터 파악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초 등학생 다문화 학생의 수는 104천 여명으로 2018년 93천 여명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11천 여명 증가하였고, 중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22천 여명으로 지난해 대비하여 4천 여명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11천 여명으로 지난해 11천 여명과 대비하여 5백 여명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 정책부터 보다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6) 여성가족부, 연도별 다문화가정 관련 통계, 보고서, 2020

17)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정소희 · 이정미 · 박선영,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합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2-R08, 2012, pp.352-354

사회공헌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 2019년 1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출간한 사회공헌 백서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296개의 평균 지속된 기간은 8.6년이다. 비율로 따지면 10년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28%의 84개, 1~5년 33%의 98개, 6~10년 20%의 60개로 나타났다. 사회공헌 사업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대해 공헌하는 ‘선순환 구조’로 지속되는 게 사회공헌 사업의 특징이다. 10주년을 맞은 LG연암문화재단의 ‘다문화학교’ 프로그램처럼 선순환 구조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10년 시작된 이 ‘다문화학교’ 프로그램은 국내의 다른 대기업 중 다문화 학생 중심 최초의 교육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3. 다문화가정 청소년 문제점

국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여가부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진다. 지금까지의 지원 혜택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능동적이라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각종 수혜를 입는 존재로 되어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인 자아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언어 교육, 이중 언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가정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차등을 두지 않는 방식을 통해 정책을 진행해 나갈 필요성이 중요하다. 특히 중, 고생 이상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추진되어야 한다.

각 부처에서 서로 상이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방안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여러 다양한 서비스 방안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¹⁸⁾

1)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정책 부족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여러 형태의 복지 정책으로는 각 지자체가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관한 근거보다는 이들에게 어떤 지원수단이 가능한가에 대한 한계를 구체화 하는데

18)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현황, 보고서, 2020.6 월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미리 알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주변 환경으로 인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지원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청소년들에게 주어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라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태의 지원책들을 알아보면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언어 능력부족을 먼저 생각하여 한국어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언어수업, 이중 언어교육 혹은 청소년 또래들의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지도에 그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언어 교육에 관한 것이다 보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학교에서의 학업에 매진하는 성취 능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학생 관련 지원 방안들이 많은 부분 비슷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모자라고 이중 언어교육이 절실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활환경에서 성장하고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중 언어는 소위 말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언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어를 어려움 없이 사용하면서 가정 내 활발한 인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며 이들 부모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본인의 정체성을 보다 진일보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부모나라의 언어가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언어라면 이들 학생들이 이후 진로를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는 과연 이중 언어를 습득하는 실익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이중 언어교육 학습이 단지 일정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혜택이 주어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법률적 근거 부족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정책들이 대체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정은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동일 집단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정도, 출신국가, 경제수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한 집단이다. 따라서 각 집단의 생활 행태와 생각하는 방식자체가 다르며 생활정도 또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그들에게 제공할 때 구성원의 생애주기, 발달주기 별로 지원을 하는 경우 다문화가정을 소득이 적은 집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 재정적 지원이 다문화가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단지 다문화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정 학생인 경우라도 그 자격에 걸맞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함으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도적 법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법률적 근거 부족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법적 근거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매우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아, 그들이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양한 서비스 복지정책 중 한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기적성, 학습지도,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등 학생의 심리적이고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 성장지원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지원 복지 정책이 놓치고 있는 맹점을 개별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표 2-6> 다문화 학생 비율¹⁹⁾

(단위: 명)

인원수	2016	2017	2018	2019
학생 수(A)	99,186	109,387	122,212	137,225
전체 학생수(B)	5,890,949	5,773,998	5,633,725	5,502,880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1.68%	1.89%	2.17%	2.49%

출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현황 2020.6월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매년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학생수와 비교하여 다문화 학생 수의 비율이 16년도에는 1.68%로 19년에는 2.49%로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많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거주 다문화 청소년들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로 이루어진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에는 국내 출생과 중도에 입국한 자녀가 포함되며 외국인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외국인 사이의 출생한 자녀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가 조사한 국내체류아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이 부처가 판단하는 미등록 또는 불법체류 이주아동 수는 최소 5,295명에서 최대 1만3,239명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문화 학생들의 미등록된 체류 아동의 22.2%가 학교 진학(전학)을 본인 의사와는 아무 관련 없이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체류 학생들에 대한 전학·진학 거부 이유는 언어소통이 36.8%, 신분의 불안전성 21.1%, 인종의 차이 등으로 인한 외모 18.4% 순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의 심리적 정신적 부담은 학교에서 생각보다 상당한 어려움을 생산함으로써 이로 인해 학교를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들여다보면, 다문화가정을 법적으로 지위를 얻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기 위해 그들이 보다 많은 문화와 소통하고 지내며 마치 한국인과 동

19)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보고서, 2020

일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서로간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측면보다 한국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지며, 결국 한국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 가족 일원으로서의 생활에서 차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다른 난관에 놓이게 된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데 만나게 되는 문제점으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 둘째, 심리적 측면, 마지막으로 교육 및 학업 측면 등이다.

1) 경제적 측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문제는 2020년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서 확인된다. 다문화가정의 가구 소득이 2015년, 2018년도에 각각 알 수 있다. 200~300만 원 미만이 2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100~200만 원 미만이 22.4%, 300~400만 원 미만이 20.1%의 순으로 확인된다²⁰⁾. 300~400만원 을 기점으로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비율이 증가했지만, 다른 구간에서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이며, 2018경우 389만원으로 다문화가정의 소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¹⁾.

2) 심리적 측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생활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갖는다. 이런 시기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경우도 흔하다. 혼란으로 인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 점차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수동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혀 추후에 우리나라에서 생활함에 있어 시간이 경과할 수록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20)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보고서, 2020

2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보고서, 2020

<표 2-7> 다문화가정 자녀의 고민 유형²²⁾

(단위: %,명)

	고민이 없다		외모	신체적, 정 신적건강	부 모 형 제 등 가족과의갈등	경 제 적 어 려 움 (학 비 납부등)	용돈부족	공부(성적,적 성등)	진로·진학 및 직 업 선택,보수등
전 체	13.9 (1,208)		26.7(2,3 24)	17.0(1,477)	12.6(1,096)	8.4(728)	20.4(1,77 4)	37.4(3,254)	25.3(2,205)
성 별	여성	10.2	38.0	16.7	8.1	9.6	23.1	37.4	27.5
	남성	17.5	15.7	17.2	17.0	7.1	17.8	37.4	23.2
연 령	9~11세	20.8	28.0	9.0	12.2	3.6	14.8	28.5	6.7
	12~14세	11.6	34.9	27.0	22.2	4.7	24.0	58.5	15.4
	15~17세	3.5	27.7	23.2	6.7	6.0	31.6	55.4	62.6
	18~24세	4.7	9.0	21.3	4.7	31.2	22.7	17.1	66.1
제 학 여 부	학교에다 님 (재학,휴학등)	14.9	28.3	16.4	13.8	5.9	20.5	40.2	21.0
	학교에다 니지않음(졸업,중퇴등)	5.4	12.8	22.3	2.4	29.3	19.4	13.5	62.4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심리분석을 통해 요즘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파악한 결과, 학업과 관련 부분이 37.4% 가장 높았으며, 외모 문제 26.7%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교육적인 부분과 함께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육과 학업 측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언어적인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겪다 보니 학교 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와 학교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또한 원만하지 못해 평상시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상당수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 정체성이 낮은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우리말 표현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외모에서 차이가 많은 자녀일수록 스스로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부족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자존감의 하위 영역인 교우관계, 신체외모, 공부, 성격, 선생님과의 관계 등 타인은 물론 사회 적응도가 모두 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외국인을 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자신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결혼이민

22) 법무부, 이주민 관련 정책방향, 보고서, 2010

자를 부모로 두었거나, 피부색의 차이 등 외모의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부당한 대우는 전지기 힘든 심리적 상처로 남게 될 수 있다.

한국의 교육현실은 이들 청소년들에게 많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인성교육보다는 단지 언어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이중문화성으로 인해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되며 부정적 성격을 띠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학습 동기 부여가 낮아 학습지원 자체에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선생님들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는 직업교육·진로탐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어 소통 능력 향상과 심리적 정서적 교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문화 학생 심리상태 상담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연수의 필요성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요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다른 어느 세대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러한 빠른 변화를 받아들임에 있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혼란·불안·우울 등 다양한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경우 평범한 청소년보다 다양한 환경적, 심리적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경우수가 더욱 허다하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이들의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것과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학업 증진이 어려워 학교생활 적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는 상반되는 심리적 제반 요인으로 학업 동기가 일반 청소년보다 부족해 상대적으로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다문화 청소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적응도와 학업 동기가 떨어져 상대적으로 학업 중도 포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 중도 포기 비율은 일반 학생의 학업 중도 포기율 보다 훨씬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 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 비율은 이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 중고교로 진학할수록 교우관계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반 청소년보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인 파악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 동기는 학습에 따른 패턴을 유발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 두고 매진하게 되는 원동력이며, 학습 동기가 많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하는데 데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학업 또한 더욱 매진하게 된다. 일례로 수준 높은 학업동기를 가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수준 낮은 학업동기를 가진 청소년들 보다 학업 도전에 상대적으로 매진하고 수준 높은 학업동기를 지닌 청소년은 학습내용에 더 많은 열정과 관심을 보였다. 이런 이유로 수준 높은 학업에 갖는 열정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 학업 동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예측하는 주요 이유인 만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 동기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청소년의 학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요인은 자아개념이라 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연구에서 이 개념과 학업성취와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학습동기와 함께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습변화 등과 많은 연관성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경제수준, 사회적 지원 등이 있다.

반면에 일반 청소년과는 다른 환경에 처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환경적 요인은 한국어의 능력, 다문화가정 관련된 사회적 차이이며 심리적 요인은 자기정체성이 취학연령 청소년에게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사례로 심리적 요인은 자기정체성이 있으며 환경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 한국어 능력 등으로 이들의 학교 적응과 학업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제2절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

1.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정책 및 법률

다문화가정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에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그것이다.

1)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다문화가정이 타지 생활을 함에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제2조에서 다문화가정을 표기하기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과 혼인을 하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국내 외국인과 출생에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갖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영역이 제한적이라 중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생활하게 된 청소년들과 등록이 안 된 다문화가정 자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아동보육 및 교육의 지원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과 정책의 혜택을 지원 받는데 어려움을 겪으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관련법의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혜택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학업 매진에 갖가지 문제점을 겪게 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기초 및 광역 지자체는 사회적응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정책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다문화 차원의 정체성과 다문화성을 제외하는 결과를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주체간의 관계, 다문화 주체들의 주류 방식 등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을 위해 우리나라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포터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편견 등을 사회 통합의 마이너스 요소로 확인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사회적 적응

다문화가정의 자립 여건 조성 및 자녀 성장 지원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사회참여 확대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기초 학업능력 증진을 위한 커리큘럼을 활용하는 등 리더십, 사회성, 이중언어개발 등 맞춤형 사회 적응시책을 넓히고 있다. 이주민 관련 정책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부처 간 논의 필요성과 대책 실효성 검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한다.²³⁾ 전국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17곳을 통해 공교육을 서포터하고 타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활성화시킨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법무부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를 통해서 외국인과 다문화 관련 업무와 자조모임, 사회통합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타 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들을 부처 자체적으로 만들어 추진하였다.

행안부의 경우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안내하여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정 참여 또한 확대하고 있다. 다문화 관련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무원 교육원에 관련 교과과정과 과목 또한 운영한다. 문광부는 다문화 배경으로 초,중등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재의 선생님

23) 홍승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1, pp.3-8,

용도의 교재를 만들어 사회통합 한국어 교재 개발을 통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나. 교육 지원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도 마련되어 있다. 현재 국제결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나라 학교에 입학하는 일은 어렵지는 않으나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일반학교 진학에 곤란함을 겪게 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있어 학교 입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다문화가정 관련 업무는 이들 가정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혜택 마련 대책에 따라 이들 청소년 학습개발 강화 정책을 제정하여 언어, 학습, 정서발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이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출발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언어로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이에 따른 어려움과 언어능력의 부족이 존재하는 것이다²⁴⁾. 한국어가 부족한 외국인 어머니와 더불어 생활하는 유아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언어발달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정서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연구센터를 중앙의 다문화교육센터로 삼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업에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경기도와 대전, 충청도 총14개 광역 교육청에 다문화교육센터를 구성해 대학교, 민간단체가 상호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4) 이기준. 2019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 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유관기관, 연구보고서, 2019

〈표 2-8〉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

자치단체	정책 및 프로그램 내용
경기도	다문화가정 대상 소외 극복프로그램 실시 외국인 근로자 자녀 출시 및 보육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상담
강원도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지원가족 돌봄 도우미 파견사업 다문화가정 결연사업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교육사업 다문화가정 의료지원 및 아동 보육지원 사업
전라남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사업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 양육지원 사업
경상북도	다문화가정 보육서비스 강화
제주도	다문화가정 아동 양육 지원 다문화가정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출처: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지방 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부서로는 대부분 자치행정부서와 여성가족 관련 부서가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 광역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담당을 편성하여 그들에게 적당한 다양한 복지 지원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은 복지 혜택을 지원 중에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문제와 가정 폭력 등 위기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관계기관별 연계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처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SOS 긴급지원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초 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향상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교육대학과의 업무협업을 통해 예비교사와의 멘토링과 부모교육 특별 강의 등 자녀 진로 지원 방안을 다방면으로 마련해주고 있다. 충청남도 ‘집배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는 우리나라 들어와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다문화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 상담가를 상호 연결하여 가족 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한다.

또한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심리검사 및 전문심리치료를 하도록 가족 내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가부의 경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생활서비스 뿐만 아니라 한국어 및 기초적인 학습지원, 문화이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지역생활권내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고 기초 법 지식 및 생활정보 등을 안내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2.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학교

다문화가정의 수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중 또한 괄목할만큼 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에서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언어 습득 교육, 문화체험 등 우리나라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다양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사람과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의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입국 초기에 다문화가정 및 그 청소년들은 특별한 지원기관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각종 지원방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가면서 보다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간의 상호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언어발달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2019년 현재 전국에 200여 개소가 운용 중에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정책은 교육 분야이다.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조성을 마련해서 다문화가족의 학생이 교육 분야에서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교육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커리큘럼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와 함께 언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어학급’ 등도 운영 중에 있다.

〈표 2-9〉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및 한국어교육 지원

유형	운영 내용
유치원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을 통합교육 형태로 지원하고, 전체 유아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운영
초·중등	일반 교과수업에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를 반영하고, 프로젝트 수업 형태로 지속성 있게 다문화교육 실시
한국어학급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할 경우 한국어학급을 설치하여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출처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2020

1) 유치원 경우

다문화교육 유치원 운영의 목적은 유치원 공동체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유아가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문화 친화적인 주위 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유치원부터 언어의 기초학습 등을 지원하여 유아기부터 동일한 출발을 제공한다.

운영의 최종 목표는 모든 유아가 이 과정과 연계한 놀이·활동을 통해 형평성, 다양성 등 다문화교육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유아의 발달이 뒤쳐지지 않도록 다양한 놀이·활동 영역과 보조를 같이하여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며 운영내용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10〉 유치원 운영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다문화교육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다문화교육 요소를 접할 수 있는 놀이 및 활동 제공
다문화유아 초기발달 지원	언어평가	다문화유아의 언어능력 파악
	언어교육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놀이 중심의 통합언어교육과 다문화유아의 초기발달 맞춤형 개별언어교육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물리적 환경조성	다양한 다문화교육 자료 비치 및 공간 운영
	교원 역량 강화	모든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가정 연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학부모의 다문화교육 및 상호이해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구성을 통한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평가		연간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한성과 도출 및 결과 환류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_유치원, 2020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보다 쉽게 우리나라 문화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진행된 훈련이 필요하다.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언어 등 기초적인 학습에 있어서 일반학생들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문화 유아에게 동일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중 학습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각별히 개인 학습이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 능력을 사전에 파악

하여 다문화 지원센터의 언어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발달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흥미를 갖도록 다문화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언어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다양한 노력을 제공하고 있다.

2)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문화교육의 초·중등 학생의 운영 목표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학생 수 증가와 다문화학생은 물론 모든 학생이 함께 어울려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학습 및 생활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라 모든 학생이 서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 형성 및 이들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다문화교육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의 운영 목적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를 이해시키고, 이와 더불어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교육 지원을 통해 이들 학생들의 역량을 도모하고 교육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이들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함께 학습할 수 있는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정책도 함께 운영하고 이와 더불어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방안을 실시하였다.

운영 목표는 다문화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실적인 사회통합 기반 마련과 이들 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을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지원하고 학교 적응을 도모하며 물적·인적 자원 활용을 통해서 학교 내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통합지원 프로세스를 확립하였다. 운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1〉 초·중등 운영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다문화교육	교과연계	교과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시간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타 활동 연계	학교행사 지역사회 가정 연계 등을 통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진로탐색	다문화학생의 진로탐색 지원 및 진로효능감 제고
	다문화학생 상담	다문화학생의 정서심리 특성을 고려한 상담 제공
	이중 언어교육	이중 언어교육 실시를 통한 다문화학생의 글로벌 언어역량 강화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물리적 환경조성	다양한 다문화교육 자료 비치 및 공간 운영
	교원 역량 강화	전체 교원 및 진로진학상담교사등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가정 연계 및 학부모 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학부모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평가·연간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도출 및 결과 환류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_초·중등, 2020

다문화가정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유도해낼 수 있는 관계 유지·지원 방안을 도모하고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및 관련모임, 자매결연 등 학교 선생님들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원격 및 대면 연수 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다 심오하고 다문화학생의 장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국제적인 언어 능력을 지원하며, 다문화학생을 포함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중 언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이중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알림판 등에 외국어로 된 상용 언어 등을 게시함으로써 물리적인 이중 언어교육 환경을 지원하였다.

3) 한국어 학급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할 때 가장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언어의 부족함으로 인한 소외나 놀림, 그리고 학교생활을 할 때 정서적인 감정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타국 생활에 보다 손쉽게 적응하려면 언어적인 요인이 무엇보다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부는 교내에 특별한 형태의 언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문화학생들의 자

질과 능력에 상응하는 한국어 및 문화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집중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의 한글교육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을 시행하였다. 한국어 언어 학습을 하는데 있어 먼저 활용되는 어휘와 교과 어휘를 한국어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다.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표준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한국어 학업 수준을 측정 가능한 도구를 보급한다. 또한 정규과정으로 한국어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한국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우수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 유치원 경우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현재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교육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2년부터 한글 교육과정과 ‘한국어학급’을 운영하여 초등·중등·고등 레벨별 특별학급 형태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외국인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중도입국·외국인유아 증가가 계속되면서 유치원 내 한국어교육 수요가 점점 증가하여 ‘한국어학급’을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어릴 때부터 한글 교육 맞춤 지원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된다.

운영 목표는 다문화유아의 우리나라 언어 의사소통 능력을 도모하고 또한 다문화유아의 언어·문화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언어 발달 단계와 보조를 같이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문화유아의 한국문화 적응력²⁵⁾을 배가시키고 한국생활 및 유치원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또래 상호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기본 생활습관교육과 함께 한국 문화교육도 지원한다.²⁶⁾

나. 초등, 중등 경우

한국어학급의 목적 및 필요성은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도에 입국한 외국인유아 등에 대한 한국문화와 언어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통한 최근 5년간의 다문화학생이 해마다 1만명

25)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_한국어학급(유치원), 보고서, 2020

26)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_한국어학급(초중등), 보고서, 2020

이상 증가하여, '19년에는 13만 명을 넘었다. (전체학생 대비 2.5%) 전체학생 대비 2.5%가 공교육에 진입하여 학습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한 학습·교우관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국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 목표는 다문화학생의 우리나라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혀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학습기회를 구비하기 위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어 학급에서의 공적인 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을 조기 지원하고 중도입국·외국인학생들의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여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²⁷⁾

〈표2-12〉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예시)²⁸⁾

1. (정규과목)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에 학급을 편성하여 KSL(한국어)을 운영하도록 한다.
2. (방과 후 학교) 다문화학생이 적은 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하여 KSL(한국어)을 운영하도록 한다.
3. (거점 형 방학, 주말과정) 다문화학생이 적은 도시의 경우, 특정 학교를 지정하고 주말과 방학에 특정 학교로 다문화학생에게 KSL(한국어)을 운영하도록 한다.

출처: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재구성, 2020

〈표 2-13〉 다문화 정책학교 교육 요소

다문화교육 요소	내용
평등성	국가, 인종, 인종, 성, 신체적능력, 사회 계층은 다르지만,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긍정적인태도와 가치
반 편견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및 차별 대우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정체성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 집단 정체감 형성
다양성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
문화이해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고 각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심을 기르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
협력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능력과 협동 능력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과 일)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2020

27)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고서, 2020

28)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고서, 2021

중앙다문화교육센터의 현황에서 보면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및 다문화 연구학교가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다문화학생 멘토링제

다문화학생에 대한 한글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학교생활 상담과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학교 생활적응과 기초 실력을 배양하고 결손 가정과 기초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하계 캠프를 통해 우수한 멘토와의 놀이학습,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다음 표에서와 같이 멘토링 운영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멘토로서 자격을 부여한 후 다문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놀이 등을 지원한다.

멘토의 경우 멘토링 시간을 활용하여 각 학교별 장학금이나 봉사 시간을 할애하여 안정적인 멘토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2-15> 대학생 멘토링 운영 개요²⁹⁾

지 원규모	4,000여명 예정
멀티 소속기관	초·중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등
멘토 선정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참여대학 대학생
멘토·멀티 대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교육급여 수급자, 학습지원필요 학생* 등 우선 대칭하고, 소외 지역에 사업비 일정비율(10% 내외)을 할당하여 운영 * 기초학력 지도 필요 등 기관 담당자가 자체 기준에 의해 판단 • 시·도교육청을 통한 멘토링 사전수요조사 도입으로 매칭률 제고 및 지역별 주관대학 지정을 통한기관 간 소통 강화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원격연수 콘텐츠(중앙교육연수원)를 필수이수 사전교육에 활용 • 입국 초기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을 위하여 외국어능력을 갖춘 대학생들을 멘토로 선발하여 모국어 멘토링 실시

출처: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2021

29)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일반논문, 제8호, 2004, pp.177-205

제Ⅲ장 외국사례 및 시사점

제1절 호주 사례

1. 다문화 정책

호주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세계에서 대표적인 이민 국가이자 다문화주의 국가이다. 호주 사람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종교, 인종의 차이 등에서 공동체 화합과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 1978년 '캐리비안리포트'를 시작으로 '하나의 다문화 호주 사회'라는 다문화주의 사회를 본격화가 추진되었다.

호주의 경우 20세기 중반까지 백인의 우수성을 배경으로 비 유럽계 이민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다문화 지원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의 대표적인 다문화국가로 전개되었다.

호주 인구의 25%가 해외에서 출생하였으며,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까지 합칠 경우 전체 인구의 약 1/2에 이를 정도이니 엄청나다 할 것이다. 다문화주의를 선언한 갈 벌리 보고서에 따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위한 권리와 이민자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 방안 등을 명시하였고, 출생지 또는 인종과 국적과는 무관하게 호주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본격적으로 다문화주의 지원책의 시작점은 그레이스비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명언설을 한 후에야 정식으로 백호주의가 없어진 뒤 다문화 정책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호주의 다문화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호주 국민은 사회에서 생활할 때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유와 평등을 희망하고 갈구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 수칙과 사회적 구조를 유지할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했다. 둘째, 모든 호주는 다른 삶과 자신을 동일하게 상호 존중해야 하며 문화적인 존중을 강조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신념을 갖고 문화를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평등 또한 중요시 하였다. 모든 경우에 있어 기회는 동등해야 하며 경제적인 생활에서 문화와 성별에 있어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략을 펼

쳤다. 이러한 전략들로 다양한 형태의 인종들이 호주에서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위해 생산적으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호주 정부는 다문화정책 실행에 있어서 샐러드 볼 이론과 용광로 이론에 따라 다문화 정책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³⁰⁾. 샐러드 볼은 다문화와 인종 등의 차이점을 개별적으로 구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말한다. 용광로 이론이란 다양한 문화들을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적인 문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문화를 통합해서 공통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2.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

다양한 문화 간의 화합을 이루어내기 위해 호주정부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프로그램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호주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은 주로 다문화가정들의 언어교육과 문화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주 다문화 정책 등 주요 정책수단 및 제도들은 다음과 같다

〈표 3-1〉 호주 정부의 이민자 통합 정책

구 분	주 요 정 책 과 사 업
연 방 정 책	이민시민권부 이민-다문화에 관한 장관급위원회 국가행동계획(NAP), 지역사회관계위원회(CRC) 화합을 이루는 삶(Living in Harmony),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십 프로그램, 화합의 날
주정부 정책 (NSW(뉴사우스 일즈) 사례)	에스닉 공동 체위원회, 지역사회정착서비스 고령자와 장애자 가족 및 지역사회 회 보호 언어서비스교육 - ESL (영어를 제2 외국어로.) - 다문화이해교육 - 난민지원 프로그램 - 통, 번역서비스보건 고용서비스 - 공공기관의 다인종고용정책 언론과 정보서비스 - MediaLink (미디어링크)

출처: 이태주 「다인종·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

30) 문경희,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인종 정체성 형성과 인종·문화갈등, 국제정치논총, 48 권 1 호, 2008, pp.267-270

정-호주와 일본의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문화인류학회, 울릉공대학 아시아-태평양 사회변화연구센터, 2007. pp.198-210

1) 호주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영어 교육 ESL

호주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영어 교육은 정부의 CMEP (어린이 이주자 외국어 프로그램)로 기관 교육 내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며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ESL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³¹⁾. ESL 과정은 해당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다르게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본 교육 과정 속에 ESL수업을 포함해서 자연스럽게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호주 정부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전에 전문적으로 영어를 배우도록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 기념일 지정

다문화가족간의 조화를 이루고 인종간에 구별이 없는 사회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호주정부의 경우는 3월 21일을 하모니데이로 지정하였다³²⁾. 하모니데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다문화 행사에 참여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책

이민해 온 12~21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지원 방안으로 NYSS(새로 도착한 청소년 지원 서비스)가 있다. 이 커리큘럼의 경우 다문화가정이 호주에서 생활할 때 때 사회에서 그들의 참여를 돕고 생활하는데 각종 지원을 가능토록 직업훈련, 의료사업, 상담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과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31) 김종석, 미국 다문화교육 (Multicultural Education) 의 이론적 고찰, 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미국학 논문집, 5 권, 1984, pp.35-60

32) 이용승, 특집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미국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연속간행물, 2011 년 08 월

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CMYI(다문화 청소년 문제 센터)는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생활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CMYI의 경우는 16세부터 21세까지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사회와 어울려 생활해가면서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업들이다. 청소년기 각종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상담할 마땅한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멘토들과 일대일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들이 호주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절. 미국의 사례

1. 다문화 정책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미국은 19세기 말 이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백인문화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 동화주의 모델이다³³⁾. 이 같은 모델은 이주민들에게 백인 위주의 미국 문화를 따르도록 강요했고, 새로운 미국인과 함께 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성을 배척한 채 미국사회 대부분의 가치관을 수용하도록 한 모습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소수집단은 다수집단의 문화를 따를 수 밖에 없었고 그결과 차별과 사회적 배척으로 언어나, 정부차원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미국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이주민 정책인 동화주의는 많은 차별과 갈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고 미국은 1960년대부터 인종 간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인종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데 있어서 차별 없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과 법령을 만들게 되었다. 1960년도부터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미국을 다문화 사회로의 완전한 이해는 1980년에 들어서면서이다. 미국의 다문화정책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 가는 방향으로 이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지원방안과 사회적 인 문화에 다양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³³⁾ 조영달,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2.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

미국의 다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는 다문화가정이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지원을 하거나 그들의 언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해 기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만들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지원을 위한 많은 공공, 민간 전문가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 중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역시 다문화 교육이다³⁴⁾. 모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그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평등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적 체계를 마련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배가시키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다문화 관련 정책 중 교육 분야는 주로 그들에게 사회학, 역사학을 가르치거나, 영어 외에 다른 어떠한 언어를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논의도 많았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는 MCE (다문화교육)를 다양성과 평등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의 의미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교육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 학급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 지역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중요시 여겼다. 베이커(Baker)에 의하면 MCE는 다양한 언어사용과 문화, 생활방식 등을 지원하는 의미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인간으로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함을 습득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지원 받고 있는 다문화 교육으로 자신들이 다양한 문화 내에서 어떤 존재이며, 그 문화에 대해 더 심오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64년~1965년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연방시민권법과 이민법을 개혁을 단행했다. 1965년 미국사회의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과 다문화가정 이민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초등교육법을 제정했다. 초등교육법에 의하면,

³⁴⁾ 1960년에는 그리스와 스페인, 1961년에는 터키, 1964년에는 포르투갈, 1968년에는 유고슬라비아와 고용협약을 맺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 학습자료 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고, 1968년부터는 학교에서 이중 언어를 이용한 교육이 허용되었다. 1972년에는 교육프로그램에 다문화에 대한 가치를 허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다문화적인 요소들을 가미하여 교육하기 시작했다.

1)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교육 정책

미국가족아동연합은 아시안계 자국 아동의 교육과 건강 등의 증진을 위해 1986년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의 설립취지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습득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각종 지원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학교 안에서의 통역, 학교보호프로젝트 등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난관을 개선하는 정책이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2)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법률

미국의 다문화 정책의 유형은 교육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다문화가정의 언어교육을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관련 법안 마련, 학교 및 사회단체와의 교육실행이 이어지고 있는 형태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법률은 2001년 아동 낙오 금지법(NCLB)로 교육의 성취도가 낮거나 다인종,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기준을 갖추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안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쓸 수 있도록 교육시켜 기초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지원방안으로 볼 수 있다.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

언어교육은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커리큘럼으로 이 과정에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할당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중을 높혀 비영어권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지원하고, 학교 내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방과 후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문

화가정 학생들의 언어 실력을 지원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이민자,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단계별인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대부분의 이민자와 다문화가정 학생이 단순히 영어를 잘 구사하게 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즘과 같은 글로벌화 시대에서 서로 어울려 다양한 환경 속에서 보다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3-2> 미국 다문화 교육정책의 특징

1. 평등을 추구하며 철학적 개념을 교육과정 속에 적용시킨다.
2.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든다.
3. 사회적 공평과 평등의 발달을 추고하는 사회 정의 교육을 실시한다.
4.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주체적 활동을 지지한다.
5. 세계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6. 의사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구조를 만든다.

출처 : 전경옥, 선진국 다문화 정책의 공존사례, 2010 재정리

제3절 독일의 사례

1. 다문화 정책

독일이 제2차 전쟁을 치른 후 동·서독으로 구분되어 대량 이주하면서 다원적, 문화적 사회현실이 만들어져 비정형 이민국가로 변모하였다. 이후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와 고용 협약을 통해서 노동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다.³⁵⁾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항상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하여 이민자들은 다양한 문화와 분리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독일의 다문화가정정책은 외국인을 제외하는 정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이후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5년 약 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8%에 달했다.³⁶⁾

³⁵⁾ 김영란, 독일의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다문화콘텐츠연구, 25권, 2017, pp.7-15.

³⁶⁾ 2019-2020 회계연도 호주 이민 데이터, 보고서, 2020

제2차 세계 대전 후, 많은 역사적 이유로 외국 국적의 노동력과 피난민과 난민을 포함하였고 대량의 외국 국적 사람들이 독일로 들어오면서 독일은 2000년대까지 이 같은 유입인구가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외부 이민 유입으로 사회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많은 다문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2.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

1) 독일 이민 학생 현황

독일은 인구의 약 20%가 이민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의무교육 단계의 이민 학생 수는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대량 난민의 유입과 이민자 수의 증가로 독일 교육은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독일과 같은 이민 국가에서는, 다른 청소년들의 언어·종교 및 문화적 배경은 다원적, 심지어는 충돌 가능성마저 항시 존재했다.

이에 따라 독일 학교의 다문화 교육과 청소년의 다문화 능력을 확대시켰고 그들의 능력을 증대시키는데 독일 교육계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었다.

2) 독일학교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 수준 함양

독일학교의 학생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문화 수준 함양은 기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다문화과정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일상 학습 환경과 더불어 학습과정에서 다문화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제기 되었다. 그래서 독일 학교는 다문화에 대한 의미를 일상적인 수업에 통합시킨다. 학과 커리큘럼과 교수진 모두에게 다양한 방면의 문장이 실현되고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상호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다문화 능력을 보다 더 증가 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독일 외국어 기본 교육과 외국어 능력

독일 초등학교의 외국어 학습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국어 비독일어 청소년의 언어 학습, 교육에 중점을

둔다. 언어능력, 언어의식, 의사소통기능 등을 배우는데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외국어 수업은 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목표는 청소년들의 문어체는 물론 구어체 표현 방식 및 언어 이해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중학교 2단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본으로 언어능력을 배운 기초단계에서 부터 외국어 교습은 청소년들이 심도 있는 다문화 학습을 배워 상호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유형의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적절한 언어 표현 및 이해 능력, 직업 교육 중의 외국어 교육은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표현 능력을 이해하는 기본에 전문화된 업무와 직업 영역의 언어 학습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다문화 능력과 학생들의 유동성을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은 외국어 기본 교육과 외국어 능력을 아주 중요시하는데 외국어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한다. 외국어 필수과목 외에 추가로 외국어 과목도 별도로 선택이 가능하다.

독일 초·중·고등학교의 학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능력의 배양과 타인을 이해하고 다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임무다. 교과목 강의의 주된 과제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행동하는 가치와 규범' 등 세계화·다문화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다.

4) 독일은 초등, 중학생에게 다문화 관련 학습을 장려하는 목적

다문화 능력에 대한 이해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나아가 독일에서는 특히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자가 많은 나라에서 스스로의 문화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화를 이해하면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독일의 일부 연방주 학교는 이주 청소년들에게 모국어를 제공하여 보충수업과 원어민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주민 학생들이 모국 문화에 대해 공감하도록 하고 그들의 이중 언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외국어 양성 모델은 이민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능력을 증진시킨다. 문화를 상당 부분 이해함으로써 독일 같은 이민 사회에서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초·중·고 학생들의 해외로의 출국을 권장하여 언어의 사회적 소통과 교제 기능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사회 속에서 언어 학습을 진행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다문화 능력을 증가시킨다. 독일의 연방교육촉진법은 초중고생들의 국외교류가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직업교육 분야

직업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독일은 직업학교를 학생들에게 장려하고 있다. 독일 연방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시작한 세계 직업훈련지원 커리큘럼은 직업학교의 학생들에게 해외학습 교류 기회와 이를 지원하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다. 해외 학습 교류를 통해 독일의 직업학교 학생들은 세계화에 어울리는 전문성과 외국어 및 다문화 능력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제4절. 외국 사례 시사점

다문화정책의 내용이나 세부적인 프로그램에는 상당히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교육이 주요 관심분야가 되고 있으며 문화적인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 사항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안내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다문화 정책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서비스 수혜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결국 그들의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정 부분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다문화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이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정책 또한 사회를 중심으로 의사소통과 사회에 대한 통합을 희망하는 쪽으로 정책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유럽,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들이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역사적인 관심사항으로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공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화다주의 정책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며 새로운 다문화공존의 제도화를 희망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와 미국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정책의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호주

호주의 다원 문화 정책을 보면 인종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상당한 경제 및 사회적인 효과를 일으켰다. 호주에서는 이민자 선별에서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공공정책의 모든 부분에서 국가중심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프로젝트'가 실행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념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갖춘 다문화주의지원 정책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연방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파트너십이 잘 갖추어진 동시에 지역사회에 근거하여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호주는 다문화정책 실천에 있어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많이 강조한다. 각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여러 형태의 문화 상호간의 화합과 통합에 실적이 많은 지역을 엄선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에 정책적인 면뿐만 아니라 재정적 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원방안을 실현해 가는데 시민적 차원의 통합은 다소 지나친 부분이 있다. 결론적으로 호주는 다문화정책이 국가를 중심축으로 하고 지방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실천하는 형태의 잘 구비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향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원 성격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실천기관으로서의 지방 정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독일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각종 사회단체의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은 호주와는 차이가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각종

시민사회 단체가 각자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으로의 다문화정책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시민분야의 참여와 함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내용을 종합하려는 역할과 연계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지금껏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주의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의 실천이 잘 어우러진 호주의 사례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

1)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 및 국제적인 교류 활성화에 효과적

백호주의 정책에서 호주는 브리태니커를 근간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토대의 단일문화구도는 주로 영국 이민이나 문화와 인접한 도시의 이주민을 받아들여 영국에 대한 많은 부분 의존을 형성한다. 국제적으로, 호주는 대영제국을 해외의 일부분으로 여겼으며, 남태평양에서 서방 자본주의의 일부 기지로서 각종 인종, 종교와 국적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 이는 호주와 인근 나라들과의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각종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배제하고 세계 각지의 이민을 공평하게 인정하는 데 노력함으로써 영국 국가에 대한 심각한 의존에서 탈피해 독립하는 데 유리하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이주민들에게 모국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이민과 정부의 보호를 받는 전통문화는 호주와 이주민들의 모국과의 연결 고리가 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이주민은 호주 대외교류의 소통 창구가 되었다.

아시아와의 교류에서 다문화 정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60년대 이후 호주와 영국의 경제적인 소통이 축소되어, 아시아의 경제가 발전하였는데, 이는 반대로 호주와 아시아 사이의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1971년에는 호주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수출은 전체 수출 실적의 39%에 달했고, 이들 지

역으로부터의 수입은 21%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호주는 1970년대 이후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조정하여 아시아 인근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2) 사회 안정 이바지

호주 다문화 정책의 지향점은 호주대학에 있다. 레아인들은 토착민과 초기 이민자들의 후손, 그리고 새로운 이민자들 모두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 그들의 선조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권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다문화정책은 호주에 충성을 바치는 경향을 지닌다.

한편, 다문화정책은 세계 각국의 이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국내에서 인종문화의 다양함을 보호하고 이를 적극 장려하며, 각종 인종 인민과 그들만의 문화의 차이를 상호 이해하며, 또 인종문화의 다양성과 공존의 국면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호주가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이상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는 각 인종이 모두 의무감이 있으며, 그 결과 “각 인종이 호주를 향한 중심축으로서 응집력을 촉진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이 나라의 발전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름을 이해하고, 각 인종 모두 평등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며, 그들이 호주에 대해 동정과 충성을 형성하는데 유리하다.

다문화 정책은 각 이민자들의 각자의 문화 전통을 서로 존중하며 동일시하여 그의 인종 동질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인종문화가 다원적으로 공존하는 형태는 각 인종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전통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며, 다른 인종문화의 공존과 상호 비교하여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더욱 주의하여 이 땅의 우수한 문화와 가치 관을 이해하면서 은연중에 서로 영향을 주고 공존하게 된다. 점차적으로, 각 종족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종족을 벗어나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호주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따를 것이다.

호주 다문화가족 정책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재회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호주 정부는 가족구성원의 재회함으로써 가족들간의 안정성을 도모하

고, 다른 나라들과의 더 나은 관계 속에서 공동적인 유대감을 갖게 하며, 우리 사회의 화합을 확대해 나간다고 여기고 있다.

둘째, 호주의 가족분야 다문화정책은 이주민들에 대해 정착지원 커리큘럼과 사회보장 커리큘럼으로 잘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호주에 손쉽게 정착하여 가정을 잘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조화롭게 살기프로그램, 영어교육 프로그램, 통번역 서비스가 있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에는 각종 수당 지급 및 연금 등이 있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도 50여개의 각 주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적 지원 재원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추진되어 학생에게 제공하게 될 서비스와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으로 인해 미국의 다문화 교육지원 제도는 빈부 격차에 따라 교육 수준의 차이를 생산하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국가가 만들어질 때부터 동화주의 정책을 추구해왔다. 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집단에게 미국의 문화를 강제적으로 요구하였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로 인해 억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온 이민자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책으로는 교육 분야가 가장 많은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적인 정책에도 많은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다양한 인종을 이해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하여 일반 청소년들과 동일한 교육을 듣고, 같은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함을 추구했다. 이는 다양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로 인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것과 교육활동에서 그들이 가진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소수학생들이 뒤쳐져 백인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 다문화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역사적인 문제로 현재까지 존재하는 인종갈등과 차별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인종이 더불어 공동으로 생활해가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고 있으며 소수집단 학생들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기관에서 인종에 따라 다양한 단체가 여러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들이 스스로 조합하고 단체를 결성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힘써줘야 한다.³⁷⁾

1) 다수 인종 학생의 중도 포기율과 입학 지연율

2000년 이전에는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의 다인종 학생들의 학교 중도 포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1997년 현재 유럽과 미국 학생의 중도 포기율은 11.2%, 다인종별 중도 포기율 25.2%에 달했고 유럽 학생의 수치에 2배가 넘는다. 2000년 당시에는 인종별로 고교 중도 포기율은 백인은 8% 정도였다. 흑인의 경우 13%, 스페인 인종의 경우는 28%로 인종 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다인종 학생 교육 불균등은 입학 지연율, 즉 학습이 늦어져 유급된 학생에 대한 교육 수, 학생에 대한 평균 수준의 차등으로 알 수 있다. 라틴계, 인디언계, 아프리카계 등 3개 인종의 학생들이 유급상황과 연수 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의 절반인 13세의 비계 남학생들, 1/3의 라틴계 학생들이 유급되었는데, 9학년 예를 들어 다문화 교육 개혁 이후, 각 인종, 학생의 가족, 문화적 수준과 유사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없애 다수 인종 학생들의 학습 의욕 및 자신감을 고취하여 유색인종 학생들의 중도포기율과 학습 지연 비율을 많이 축소시켰으며,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유색인종 학생들의 중도 포기 비중을 높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다인종 교육의 법률을 다듬어, 불공평한 현상을 고치다.

1980년대 미국은 다문화 교육 커리큘럼을 교사 교육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1년, 이 위원회는 문화에 대하여 포인트 진

³⁷⁾안정오, 독일의 문화정책,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7집, 2011, pp.59-88.

행, 교수를 포함한 모든 학생의 평등을 중시하고, 공평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1980년대를 기준으로 아프리카계 교사 6%, 백인 교사는 전미 교사의 89%, 미국계·아시아계 또는 기타 인종 교사 5%에 그쳤지만 2008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14%, 76%, 10%가 이르렀다. 1980년대 이전,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과 매우 좋은 조건의 사립학교, 흑인가정의 자녀들, 조항들, 학교와 학교들에서 자녀들 1994년의 미국은 「목표2000 미국교육법」, 「개선 미 국립학교법」 등을 발표하였고, 1998년에는 「교육 제1: 미국의 미래」를 형성한다. 등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주 및 학군형성지구의 학교 운동장 관련 건설 지원, 교학차량 설치, 다양한 매체 교육, 불리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학생 지원, 장학금 확대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고교 졸업율은 인종별로 살펴보면, 백인종 91%, 흑인종 83%, 히스패닉 62%로, 1980년대보다 2.6%, 16.3%, 12.5%정도씩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초·중등학교 교육의 질은 고등교육의 수준을 결정짓는데, 1980년대에 흑인종의 경우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을 미국인 4%정도, 심리학 5%정도, 경제학 2%정도, 역사, 지리, 수학, 물리, 의학 등의 학과에서 모두 1%정도를 넘지 못했다. 2008년대까지 흑인종은 사회학 박사 학위증을 받을 미국인의 7%정도를 차지한다. 지리, 역사, 물리, 수학, 의학 등의 학과는 모두 3%대를 초과하여 흑인사회의 위상을 대폭 높였으며, 이는 사회의 공평성을 더욱 이끌었다.

미국의 경우 교내에서 다문화 교육을 단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대상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교사까지 확대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먼저 교육하는 모든 사람이 다문화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필수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보듯이 미국처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3. 독일

1) 유럽의식 확립관 신분감 제고

독일의 경우에 있어 시사점으로는 이중 언어 교육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까지 독일어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국어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언어 2가지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단순히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언어를 통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차별과 편견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들의 능력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부분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통하여 대부분의 가정 친구들과 상호간의 문화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부분이 취지이다.

유럽연합이 시작한 '유럽 학교' 커리큘럼도 효과가 상당해 독일 학생의 다문화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950년대에 설립된 유럽학교는 모든 아이가 자기 나라의 선생님들로부터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의 언어를 배우고, 타국 문화를 이해하며,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면서 유럽의식과 신분감을 골고루 갖춰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독일 북위주의 유럽학교는 학생들에게 이중 언어 수업을 제공한다. 어떤 학과의 커리큘럼은 유럽의 지식과 문화의 시작인 다관문은 학생들이 유럽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유럽학교의 청소년들은 아주 강한 유럽 지향적 능력과 민주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을 통해 어느 수준의 다문화 능력과 시민능력을 함께 가질 수 있다.

세계화의 방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독일의 다문화 교육은 학생의 세계화 공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판단한다면 국민의식과 세계화 환경에서 갖추어야 자질,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다문화적 교제와 소통능력은 글로벌화로 인한 도전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특히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 독일의 청소년 다문화 정책은 교육 지원 정책이 대표적

이민자 모국어와 독일어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수업을 개설하고 육성하도록 발전시켜왔다.

독일 법질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고, 법질서의 내용은 독일연방의 국가수립, 기본법과 국민의 의무, 유럽사회의 시장경제, 법치국가, 독일 이민사 및 지역사 등 문화 부문은 종교의 다양성, 인류의 이해, 문화와 지역의 다양성 등을 교육하도록 진행되어 왔다.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통합강좌를 제공하며, 참여자는 통합강좌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³⁸⁾

독일의 청소년 다문화 정책은 대표적으로 교육 지원 정책 등이다. 독일 정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그들의 사회경제문화 분야에 손쉽게 동화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과정을 수립했다. 독일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 범위 안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은 상당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민자의 언어교육과 문화교육, 학교 내 사회적응 문제 등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등을 아끼지 않는다. 또 독일에서 교육받은 학생 중에서 외국이나 이민 가정의 자녀가 전체의 10%에 이른다. 독일 정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상대로 다양한 언어교육 과정을 실천하고 지역별로 이민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무소를 통해 학령기 이전의 조기 지원부터 학령기에서 취업까지의 다양한 과정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독일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다문화가정 및 이주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체류기간 5년이 경과하면 장기적 체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들을 위한 의료보험과 언어시험, 주거 등에서 다양하고 유사한 권리가 주어져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하는

³⁸⁾제1외국어로서 영어를 선택하는 경향은 독일만이 아니라 EU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EU의 17개 국가에서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영어를 선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Hansen, G. op. cit. pp.311 참조

실정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이중 언어 교육만을 통해 선택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일어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독일 학교에서는 제2언어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언어는 당연히 영어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독일 문화와 언어를 강조하는 것이 물론 좋은 측면도 있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특수성을 침해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Ⅳ장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제1절 한국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이번 연구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지원받고 있는 정책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생활,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지원 정책은 많으나 기존 틀 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 또한 많은 게 사실이다. 첫째,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언어적 능력이나 사회적응 능력은 일반 한국 학생들과 별반 격차가 없다. 둘째, 외국인 가정자녀와 중도입국자 가정의 자녀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자녀가 우리나라에 입국해 생활하면서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셋째,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중고등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데, 학업과 진로·진학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에서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한 영역을 정하는 데만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중교육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 또한 주기별로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어 법적으로 규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거주 지역별로 인력충원 등 예산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원 정책 또는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의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언어교육 측면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언어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연스럽게 부모나라의 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 문화, 환경적인 이유 등으로 한국어를 더 잘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다문화가정 자녀가 부모나라의 언어와 한국어 중 어떤 언어를 더 잘 사용하는 지는지 알아보면, 94% 정도가 한국어를 더 잘 사용한다고 나타났으며,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나라의 말을 더 잘하는 경우는 5.9%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개별적인 특성을 보면 나이가 높아질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외국계 부모 나라의 언어를 더 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보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자녀들 중심으로 외국계 부모 나라의 언어를 더 수월하게 사용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 다문화가정 자녀의 능통언어 (단위:%;명)

		한국어를 더 잘한다.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더 잘한다.	합계
전체		94.1 (88,953)	5.9 (5,571)	100.0 (94,524)
성별	남성	93.0	7.0	100.0
	여성	95.2	4.8	100.0
연령	9~11세	96.4	3.6	100.0
	12~14세	96.9	3.1	100.0
	15~17세	94.1	5.9	100.0
	18~24세	81.6	18.4	100.0
재학 여부	학교에 다님 (재학, 휴학등)	95.8	4.2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졸업, 중퇴등)	71.6	28.4	100.0

출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2020

위의 〈표4-1〉과 같이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학생들 중에서도 한국어 실력이 상당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한국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언어교육이 필요하며

부족한 가정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 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험으로 아이들의 수준을 확인하고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말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중 언어의 경우 학생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봐야 한다. 단순히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그들진로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지금 당장의 이중 언어 교육 문제가 직면해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언어 교육을 통해 그들의 진로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다문화교육국가협회는 “학교 수업은 성차별, 인종차별 문제, 등급주의, 연령차별, 언어주의, 종교편집주의와 배외주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학생들의 교육지침은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돼 교육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체험학습에 집중됐다. 지역교육사무소와 학교 단위별 과정안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지역교육사무소는 가이드 라인과 교과목 개발을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교육, 아동, 다문화가정 배경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고려하고 있다. 학교 단위의 필요성을 감안해 지역교육사무소가 이들의 교육수요의 실질적 현황을 고민하고 살펴봐야 하며, 교과요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지역교육사무실은 각자의 학교의 교육계획 관리가 불가능하며, 지역사무실은 각 지역구를 연합하여 공동으로 정신장애 학생, 학습 장애인, 귀국한 한국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마다 시행되는 커리큘럼은 학교마다 특수한 교실

관리 프로그램인 다문화가정과 한국인 학생들과의 교내 수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문화과정은 이미 정부 정책이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만 집중되고 있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다문화과정은 직접적인 정규과정이 아니지만, 장래에도 계속해서 본 과목에 녹아들어야 하며, 정부 규정은 강제성이 있긴 하지만 학교 단위나 지역교육사무소에 대해 다문화 교육계획과 함께 다문화 발전을 마련해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2. 법률적인 측면

각 부처들 간의 업무 분담을 통해 각 부서 간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보다 계획된 단계를 거쳐 지원 정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과 출신 국가에 따라서 성장해 온 환경과 경제 수준이 상이해 다문화가정 학생이지만 부유한 가정환경 속에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불필요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주기별로 지원을 하게 되어 불필요하게 예산이 초과되어 법적인 규정 작업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다문화는 이제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생활상 불가피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꾸준히 마련되어 왔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에 따른 법률적 대안과 지원부서의 대응방안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먼저 중앙 부처의 정책관리체계의 경우 각 부처가 지원 사업을 이행하면서 다문화 사업은 이중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예산이 상이하게 사용되고 인원도 필요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협조와 함께 동일 부서에서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둘째, 다문화 관련 법률은 많은 업무담당 부서가 주한외국인들의 처우기본법 등에 해당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전담하여 처리할 담당부서 및 관할 부속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관련 전담 공무원의 보직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위원 혹은 전문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감안해 차별화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중도입국 청소년 등 각자 동일하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취급하는 것은 국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프로그램,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각자의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주변 여건을 반영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정책뿐 아니라 일반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시스템 마련과 차별받지 않을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단일민족 의미의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두는 인종,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인 만큼 우리나라는 다문화 의미에 대한 이해교육을 더욱 대내외에 알리고, 고착화된 단일민족 의미로 인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건강과 일반적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3. 예산 측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생활하는 개인별 영역에 따른 예산 지원의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시군구를 보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문화 기관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관이 있어도 기관 내 방과 후 지원, 무지개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등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와 함께 이용할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유사한 정책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이로 인해 조성된 예산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거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수련관 등 지원시설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서비스 지원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와 다국적인 문화적 요소 등을 적극 이해할 수 있는 대중 매체를 활용하고 방송 내용도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해 화합적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향후 더 많은 다문화가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만들고, 다문화가정내 학생들이 한국 사회, 특히 학교생활 장면과 사회 적응에서 경험하는 문제점을 소재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문화 관련 보다 많은 공익광고를 제공해 다문화 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중 앞에 소개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 일원으로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전문 인력을 파견하거나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어 학교와 가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교육매체 콘텐츠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일반 학생의 이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다문화주의와 소수 계층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 혹은 직무연수 때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중요한 수업내용으로 최소한의 시간 이상으로 수업을 추천한다. 이와 함께 사회 소수자의 문제·해결 방안을 담은 교과서도 제공해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편견, 학교폭력 등 차별을 받는 일이 빈번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 내에 정신건강 상담소를 두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실시간 도움을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의사를 배치

하여 다문화가정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정책학교의 많은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꼭 필요한 정책 지원이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무료진료 서비스 등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저소득학생의 의료나 교육지원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혼이나 사상자로 이루어진 편부모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문화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을 위해 사회복지실천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과 사회복지실천을 여러 분야에서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가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정책학교를 많이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공평하고 보다 합리적인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다양한 협력과 노력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으로 어울려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나이 제한 없이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나 거주지 신고를 한 모든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교육은 언어교육과 국가 이해교육 두가지로 나뉜다. 언어교육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육배경과 학습 진행속도 및 능력에 관계없이 학습시간과 목표수준을 획일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교육 향유정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우리나라에 생활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없이 대우하고, 다문화가정의 경제·교육 등 각기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리하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첫째, 외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언어 교육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학력과 배경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중국, 북한 출신 사람들과 외국인 유학생 등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다른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이 국내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한국어 강좌를 운영해 국내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다문화 지원 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이민자에게는 더욱 더 간편한 지원이 제공된다. 다문화 가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취업, 진학,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며, 국제결혼가정을 꾸린 세대에 대해선 일반 생활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교육평가요금제다. 우리나라에 90일 이상을 체류하는 등록자는 누구든지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와 난민은 무상으로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민자들이 참여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거나 학습적인 의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정책학교 측면

1) 유치원

유치원을 대상으로한 다문화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문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평등성과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생활 태도를 유아 교육 종합 과정과 운영을 목표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제시 활동을 목표로 한다.

다문화 교육 관련 콘텐츠가 문화적인 이해와 다양한 분야가 많은 반면 편견·평등·협력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비중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교육 콘텐츠는 어린이의 현실과 관련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별로 콘텐츠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화적인 이해와 다양성에만 중점을 두

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는 향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평등과 편견, 협력 등에 유아에 대한 교육을 목표로 하는 관점에 비중을 두어야 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불평등·편견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시도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과정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유사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에서 유아에 관한 기초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또 문화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호 소통하며 서로 돕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한 지금, 미래사회로 나아가야 할 관점에서 이런 불평등과 편견을 어려서부터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의 주요 내용은 유아들이 다양한 존재와 다양성을 공유하고 독단의 문화의 차별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의 성장이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속에 사람들과 상호 인관관계를 형성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다 더 구체화하면 다문화 교육은 어린시절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다양성과 평등, 서로 어울려 함께 공존하며 생활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또 유치원 등 모든 유아교육기관이 다문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축소시키고, 다문화 관련 정체성을 높이며, 모두다 평등의식을 갖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적절히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 유아시기 다문화 학습을 통해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에서 벗어나고 우리나라 문화 가정의 발전을 도모한다.

둘째, 다문화 관련 교육활동 형태와 활동 범위 내에서 유아기의 모든 연령대에서 채팅, 동기화, 미술 등의 활동이 교육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이 다문화 교육 학습 활동을 할 때 주로 그림동화를 통해 활동 중심의 교육활동을 하고, 유아기 아동들의 다른 방향은 간과하고 있다

는 점을 제시한다. 유아기의 다양한 문화와 교육과 함께 무엇보다 유아들이 보다 다양한 생활환경을 통해 다양한 문화 교육을 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활동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선 특정 분야(언어, 미술 등) 및 학습활동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루 일과 운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스포츠, 게임, 미술, 음악, 요리, 야외게임, 현장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활동을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학습을 통해 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문화가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직접 느끼게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어려서부터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중의 고정된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생활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전 연령대에서 가족과 유치원/어린이집과 친구 등 생활 주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활동이라는 주제 중 상당수가 전국 여러 나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교육기관은 다문화 관련 활동을 할 때, 각 국가별 기초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정책 등 기초문화 방향의 주제를 많이 감안하여 기존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힐 필요가 있다.

유치원에서 연간 교육 커리큘럼을 편성할 때 인성교육처럼 다문화 교육과목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연간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다문화 교육 과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유아담당교사용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다양한 학습법 활용을 위해 다문화 교육 교사의 실력을 배양하고, 교육수준을 제고하여 교수-학습 참고 자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사교육 및 다문화 연수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는 반드시 시스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학습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의 다문화 관련 과목이 다른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 과목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와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이 절실하다.

2) 초·중등학교

초·중·고등학생에게 다문화 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문화 사회의 의미를 세분화하고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한 두 가지 교육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 사회의 의미를 이해하고 보다 빠른 이민사회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민자와 함께 다문화가 낳는 모순점을 이해하고, 차별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공존하는 다문화 정책을 펼쳤다. 학교의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사회의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방법이 자 다문화 사회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문화사회의 초기단계에서 다문화교육은 우리 사회 구성원과 연관된 만큼 다문화 교육의 중요함에 대해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초등·중등·고교에 중점을 맞추고 시행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의 다문화 학습 지원은 가정교육·심리상담·미래의 교육 발전 방향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2008년에 창립된 다문화교육학회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 연구가 확대 실시되면서 다문화 관련 개념을 정리할 필요성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교육은 21세기형 새로운 교육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학생들 수준에서 초등생의 다문화 수용에 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성별, 가족구조, 자존감, 독서시간, 공감 및 배려 성향, 교내 사회관계, 교내 다문화 교육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남녀 성별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부분에서 성별 위주의 모든 교육과정과 다문화 프로그램 이후의 한국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다른 한편, 양친부모가 아닌 학생은 양친부모보다 오히려 이웃 또는 가까운 친구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 개개인의 신체와 심적 변화를 구체적 시간대별로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피드백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나라 생활과 교육방식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업 지상주의 관행을 벗어나려는 학교 혁신 움직임과 맞물려 교과 중심 평가나 학생들의 봉사활동, 독서 및 체험활동 등의 비 교과목 학습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각자가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나라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기관과 학교들 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각자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 알게 된다. 이것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최소화 하는 것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노력 속에서 학생들은 상호 이해하려는 학습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교내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다문화 교육에 대한 경험과 초중학생들의 다문화 정책학교에의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다문화 교육 결과가 차별·편견·낙인 등을 발생시킴으로 다문화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와는 별개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다문화 교육들이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런 학교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문화를 인정하는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과목 중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내용의 다문화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교육이 되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 그리고 개방적 태도를 기르기 위해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다문화학교는 언어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계층적 측면에서 남녀 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학습기회와 문화적 권한을 제공하기 위한 곳이다. 아울러 다문화학교는 모든 청소년이 보다 민주적인 가치와 신념, 공통된 행동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호간의 문화가 요구하는 지식과 태도를 키우는 데 더욱더 신경 써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불공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주의를 촉진한다.

다음으로 다문화 학교는 다문화 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곳이다. 이런 다문화 학교는 학교 내에서 반드시 문화 다원주의 혹은 종합 다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다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해 더 잘 알고 편견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는 등 집단 간 접촉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는 다문화교육정책학교의 선생님 수준을 제고하고 교사 스스로의 지식축적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계꿈 교사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문화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풍부하게 하고,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학교는 모든 자녀들을 대상으로 모든 차별과 편견을 완화하고 다문화에 대한 감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다문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의 규모와 다문화가정 교육 환경을 둘러싼 여건 등을 고려해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관련 내용을 학교의 교육목표로 삼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을 운영하는 다문화예비학교(한국어학급), 중점학교, 특별학급 등을 다문화학교로 정의했다. 다문화 대안학교는 교육받는 대상, 각종 프로그램 등에서도 다문화학교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에 대한 이력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늘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가 부족한 지역부터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학교,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지원 학급, 특히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어린이집 및 다문화교육연구학교 등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 다문화 교육 관련 정책학교를 많이 설립해야 한다.

한국어 학급에서는 지역별로 동일 국적의 외국인이 모여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일 언어권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러시아계통의 학생들은 대부분 중학교에 많이 있으며, 베트남 출신과 파키스탄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이럴 경우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등교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줄고, 함께하는 수업 시간에는 일반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학교가 동일 언어권 집단을 형성해 우리나라 언어 학급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을 차단하고 한국어 실력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일언어권별 학생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가능한 한 다문화 자녀들이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실효성 있게 실천하는 한편,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선입감과 부담감을 줄여주어 갈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는 학급은 학생수가 많고 학생별 인종이 다양해 국가가 실제 지원하는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반 운영비를 일괄 지원하기보다는 한국어학급 운영의 기본 운영비에 학생수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 언어 교육 시스템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자국어 교육과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다문화 이해 수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실제 다문화교육정책학교도 이런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적 언어 교육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다문화 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보다는 일반학생들과 학부모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선호하는 언어로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이중 언어 교육이라는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학교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다문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다문화가정 정책과 다문화교육정책학교의 제도와 사회복지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중 언어 강좌를 개설할 경우 일반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도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기보다는 이중 언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 자국어를 이중 언어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적인 유대관계 강화가 한

국어 학급을 운영 하는 것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나, 교육청과 다문화 센터와의 한국어교실 네트워크가 구비되지 않아 필요한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아서 지역의 유관기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시도 교육 기관 중심으로 해마다 1월에 지역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의 다문화교육 관련 과목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일선 학교에 관련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다문화교육 담당교원은 물론 다문화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일반학급 교사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 학급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 중심 평가 및 성적 평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장 <표 2-14>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연구학교 현황을 보면 기존 다문화 교육 한국어 교실이 별로 없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다문화 사회가 성장함에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기관, 특히 부족한 한국어 교실을 더 많이 증설해야 한다.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고, 조상에 대한 가정교육은 아동의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는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소다.

첫째 정부는 교민 특색의 기초적인 교육을 중시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매개체를 위한 플랫폼을 구비하며, 매개체의 소양을 증가시키고, “다국적 입양“을 봉합하고, 문화적 간격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학교의 교장 및 관련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배움과 정신건강에 많은 배려를 해야 하며, 관련 심리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교사를 중심으로 반 간부가 중심이 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캠퍼스 부조 시스템을 구비하는 등 등 캠퍼스에 문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학교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것이다.

넷째 학교는 과외 활동과 사회 조사 활동을 많이 실행하여 다문

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회적 시야를 넓혀 주어야 한다.

다섯째 자국의 문화와 부모의 회사가 있는 나라의 사회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기구를 설립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전통문화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도 편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외국 사례 개선 방안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사회에 대한 규범적 이상이나 이상을 구체화하는 의미 이상으로 일련의 정책과 정책지향의 문화적 다양함의 인구학적 현실을 의미하게 되었다. 다문화주의는 정체성 및 다양성 인식, 이주민들과의 통합, 국가적 건설, 사회적 결속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도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형태의 목표로 이루어야 한다.

다문화 개념과 정책, 그리고 문화적 다양함에 대한 공개적인 담론은 본 논문에서 제시되었던 국가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역사적, 정치적 토대를 바탕으로 여러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유럽, 미국의 다문화 정책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호주 등 다양한 선진 국가에서 문화와 인종간의 중요한 원인은 토착민들에 대한 역사적 대우와 우리 사회에서의 그들의 현대적 위치와 맥락을 같이 한다.

1. 호주

호주 인권위원회가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에 대한 과제는 반드시 원주민들과 함께 하고 문제에 대한 관심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분야에서 원주민 문제를 다문화주의의 영향권 내에 포함하려는 의도는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호주 원주민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이주 배경을 가진 호주인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혼동하는 것이야말로 호주의 다문화 관련 정책 기원과 바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토착민들로 인한 특별

한 관심과 배려를 인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방법으로 국가들 간의 인프라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이동함에 따라, 이주는 점점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규모가 다양해지고 이민의 성격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인종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고 다문화 문제와 같은 정책의 효용성을 고려해 볼 때,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와 호주 사회의 다양함과 변화의 현대적 성격을 객관화하기 위해 새로운 의미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

호주의 경우는 언어적 기대에 부응할 필요성을 이해하면서,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대부분 영어의 상대적 우월성에 대해 전제되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언어 교육 지원 자체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언어가 아니라 생활분야에서 어려운 분야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언어교육 이외에 다른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호주는 사회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 사회조직근무 환경, 종교를 포함한 모든 사회 요소와 수단을 포함한 양호한 시민교육 환경을 통해 시민교육의 전체적인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주체문화를 강조하면서 다른 문화와 민족의 문화적 정수를 통합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류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풍요롭게, 보완 발전시켜 가치관 시스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류 가치관은 전통문화의 기초를 근간으로 현대문명과 다른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의 교감을 얻어야 한다. 또한 공민 교육을 풍부하게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가치관 교육은 체계적으로 마련된 계획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시민교육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공민 교육과정을 기존과는 별개의 학과로 만들어야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기준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다.

오늘날 다문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난제들은 국경을 초월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다양한 도전에 어떻게 직면하는가에 대한 더 많은 의문점을 남긴다. 원래 호주와 해외에서 문화와 언어

의 다양함에 많은 의구심을 가졌던 개념과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가 연속적인 자유민주주의 영역에서 문화적 행태에 의해 중재되는 종교적 다양성과 표현에 의해 구별되는 문제들과 다문화주의가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계속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소수자 공동체가 맞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대중매체와 교육 기관별로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양성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서, 다문화주의가 어떻게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참여가 다양성 확대에 따른 변화와 도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정책의 기본 이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사회와 문화가 다양화 되면서 다문화정책 또한 계속해서 변모해 왔다. 미국의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인종들이 생활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다문화 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아주 많은 주와 지방 단체들에 의해 통제되고 수행되어 많은 변화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정책에도 많은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 인구가 많으므로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갈등이 야기된다. 그로 인해 아직까지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기본 이념과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일반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교육을 지원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다문화 정책을 각각의 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연방 교육부가 조직 개편과 규제를 통해 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학교 체계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시험기

준을 만들고 연방정부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일정 수준에서 이러한 모든 학생들에게 평가를 하도록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를 살펴보고 각 주 교육 관련 기관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이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종 관계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고 많은 배경을 가진 상대와 자주 소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친숙함을 표현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의심할 여지 없이 젊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이후 발전해서 국가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있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열린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다원적인 문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법률 기초를 확립하고 법률 체계를 건전하게 해야 한다. 현재 다원적 문화정책은 오래전 하나의 법안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그것이 국가 법률시스템 내에서 일정부분 지위에 대한 강조와 이 법률의 보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다원'과 '쌍어'의 관계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쌍어는 문화의 처리 과정에서 언어의 정의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의 관용적인 표현이 있지만,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를 실현하고, 동시에 언어 이외에 다른 방식의 민족 집단 권익에 대하여 실천되어지는 것은 모두 다원 문화주의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원적인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사법소송제도를 구비해야 하며, 소수 민족의 구체적인 권리가 훼손될 경우 법률 명문 규정에 의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정부 확대다. 재정투자와 조직기구의 집행력 확보는 미국 정부의 다원적 문화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히 보호해주고 단지 이중적인 보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정책제정과 재정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가 가정에서 다원적인 문화에 사용되는 재정 교부금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이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려면 건전한 재정의 지원이 절실하다. 국가는 반드시

시 이 항목에 필요한 예산의 크기와 비중을 높여야 하며, 자금을 상징적인 문화 보호 정책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다원문화주의센터, 다원문화고문위원회, 다원문화상설위원회, 의회비서 등을 만들어 민족문화를 위한 공동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독일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다양한 절차의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독일은 이전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어 많은 차별성이 제외된 형태를 보여왔다. 그 후 독일 국가 정책의 중심적인 역할과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실행방안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분하고, 또 각 주도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단체가 다문화 인종에 대하여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상호 어울려 생활하는 다문화 사회 입장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대부분 장기거주 이주민들에 대해서 그들이 연간 단독으로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의무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만을 위한 600시간 이상의 독일어 관련 수업과 시험 프로그램 등을 공동 대응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청년층을 위한 통합교육을 들여다보면 27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학업을 지속해서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600시간의 수업뿐만 아니라 360시간의 별도의 수업까지 지원하는 형태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부모 대상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을 보살피기 위한 많은 자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종교나 문화적 배경을 통해 통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여성들만의 합동 교육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통합교육 정책에 의해서 독일의 경

우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여러 형태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지원들이 대부분 교육에만 한정되어 있어 정신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스템과 정책 방향은 일정부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직업, 가정과 일상 등 기본적인 활동을 통해 필요한 정책도 있다. 그러나 교육 부분의 정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지방정부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서로 연계되어 다양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정체성’이라는 교육주제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맞춤 정책 커리큘럼을 통하여 그들에게 계속해서 자아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신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커리큘럼들이 실천을 할 때 생각과는 달리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순간적인 반응과 성과 및 실적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 변화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고찰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노력을 통해 다문화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다문화라는 개념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며 독일 정부와 다양한 단체와 지역에서도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있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독일 국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연방 및 지방정부가 상호 연관지어 다양한 단체가 서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여러 다문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의 경우 상당수의 다문화가정이 생활하고 있는 만큼 이들 가정에 부합하는 여러 형태의 정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학습한다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소통함은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상호 공유하며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의 단편적인 동화주의적인 추진 방식을 배제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 나갈 수 있는 사회 대통합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

가정 청소년들이 서로 정보 공유와 교감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인종사회와 다문화사회는 서로 구별되는 많은 특징이 있지만 결국엔 모두 사회평등, 국가의 완벽함과 안정을 희망하는 것은 동일하다. 따라서 독일은 교육측면과는 별개로 다양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신의 특성을 구분하여 자신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실행해 추진한다면 독일 국가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보다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만들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 V 장 결론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내용을 들여다봤다. 먼저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고, 호주와 미국과 독일과 같은 선진 외국의 다문화를 선제적으로 먼저 실천해 옹근 정책들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정책들을 상호 분석하고 대안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 과정에 놓여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상호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동등한 위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 상호 이해와 개인의 문화를 지속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국제결혼의 가파른 상승 곡선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부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사회구성 일원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문화가정구성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결과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언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학생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중 언어와 우리나라 언어 교육의 다양한 정책

들과 같이 유사한 정책들이 아주 많이 보였다. 또한 이중 언어교육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특정 부분에만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이다.

둘째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경우 생활 패턴과 생각하는 관점이 서로 상이하지만 저소득층과 비슷한 부류로 판단하여 생각하고 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때 동일하지 않은 복지정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언어적인 지원방안 이상으로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정착할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보다 나은 많은 복지 혜택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하는 다양한 통로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재정의 한계로 적재적소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마련이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많이 생활하는 거주지 주변으로 민간 단체와 소통하여 이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많은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면 언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많았지만 설문 분석결과 그냥 다니기 싫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고, 그 다음으로 친구와 선생님과 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다니기 싫다는 비중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습득하는 심적 부담으로 인해 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스트레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과적으로 언어 교육과는 별개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서구 선진 이민국가의 다문화 지원 정책은 비교적 일찍 시작되고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참고할 부분이 많다.

첫째, 각 나라별로 이민자가 유입되는 환경은 각각 다르지만,

선진국 각각의 나라가 다문화 정책을 실천해 옹기는 방식도 각기 다르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원정책을 국가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실천하든, 다문화 정책 계획을 추진한 주체와 시간, 체면 등을 통해 실행하는 국가마다 추진 방법과 목표가 상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원인에 기인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가 실제 많은 이민 인구 유입이 허락된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이민자 단체의 규모도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이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결혼이민자와 해외동포가 결혼과 혈연에 의해 우리나라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이민국가와는 사뭇 구별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다문화 복지정책과 기본계획 등은 우리나라 다워야 하며 국가발전의 기본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지원 방안의 발전방향과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와 지원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언어교육 정책이 보다 시스템화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라 이유로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교육이 아니라 한국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살펴보고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정확한 통계를 찾아내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안을 준비하여 중복적인 지원 방지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차단해야 부모의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여유는 각각 차이가 있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경우도 보다 여유로운 경제적인 배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없을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정작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절실한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진 상황이 발생해선 곤란할 것이다. 부서 간 업무 분담을 시스템적으로 분리

하여 실현함으로써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우리나라 언어 교육을 책임지고,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구축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따라 인력충원 등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와는 달리 농촌의 경우 지원 기관수가 많지 않고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적, 언어적 갈등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심리적인 상담, 정체성 상담 등 다양한 관심으로부터 제외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하여 정신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있는 여러 형태의 정책을 마련하여 단기적인 방안은 물론 장기적인 방안들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부처에서 다문화 관련 지원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다문화사회를 인권에 근거한 정부 및 국민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이들은 절대적인 동화대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평등과 문화적 다름을 상호 이해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에 맞는 법규 제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외국의 다문화 인식전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편견과 갈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겪는 사회생활에 있어 많은 난관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책은 교육 분야이다. 그들은 모든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와 어울려 함께 생활할 때 기본

적으로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적 프로세스 잘 갖추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많은 노력이 실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적인 이유로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른 수준이고 다문화 문제에 대한 응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 정책의 내용이 상당하고 범위가 넓으며, 추진과정상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상대적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국가의 이민문제 등에서는 참고할만한 지원책들이 많이 있다. 비자 절차 보완, 이민 인재 지정 및 평가기준 마련, 체계적인 이민법 제정, 불법이민 단속 등 우리가 봉착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오늘날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다문화단체, 각 부처 간 상호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에 보조를 맞춰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난관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외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지원 받고 있는 다양한 관련 정책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홍승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진수, 다문화 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 방안 연구 : 결혼가정 자녀의 범죄 노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최지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와 외국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일반논문, 제8호 2004,
- 강하라, 다문화 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 양육행동을 매개로 초기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 단적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논문, 제11권 2호, 2021, pp.127-162
- 이형하, 부모의 스트레스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 위험간 중 단적 인과관계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적용,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술지논문, 2021, pp.373-385
- 김지영, 이윤석.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부모의 역할: 학교급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연구논문, 43권3호, 2020, pp.77-104
- 신창식,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에 관한 연구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 연구논문, 68권1호, 2021, pp.257-281
- 김영란, 독일의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연구 : 베를린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보고서, 25권25호, 2017
- 김종석, 미국 다문화교육의 이론적 고찰, 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미국학 논문집, 연구보고서, 5권 1984,
- 문경희,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민족 정체성 형성과 인종·문화갈등,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연구보고서, 48권1호, 2008

안정오, 독일의 문화정책-베르린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보고서, 37호, 2011

이기준, 2019 교육 통계 분석 자료집(유·초·중등 교육 통계편),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유관기관, 연구보고서, 2019,

안원석. 「다문화 가정 자녀의 표현 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학
구교원대대학원

김경자(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석사 학
위 청구 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 연구. 석사 학
위 청구 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고서, 2021년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고서, 2020년

교육부,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보고서, 2021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보고서,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 보고서, 2020.10

법무부, 이주민 관련 정책방향, 보고서, 2010